

제주를 바라보는 19세기 유학자의 관점

—이한우, 김정희, 이원조를 중심으로—

손기범*

차례

1. 서론
2. 본론
 - 2.1. 매계 이한우: 수신과 자연미 발견의 공간
 - 2.2. 추사 김정희: 그리움과 위기지학의 공간
 - 2.3. 응와 이원조: 점선천하의 실천 공간
3. 결론

1. 서론

19세기 중반에 제주의 문인으로 이름을 떨친 문인은 매계 이한우다. 매계는 향시에는 여러 차례 합격을 했으나 대과에서 낙방하는 좌절을 경험한다. 실패 후에 느끼는 좌절감은 매계로 하여금 타향에서 고향을 더욱 그리게 하는 계기를 만든다. 이후 매계는 고향에 돌아오게 되고 제주의 자연 속에서 살아간다. 한편 1840년 9월에는 추사가 제주에 위리안치 유배를 오게 된다. 매계는 유배 온 추사의 적거지에 찾아가 학문을 배우기도 한다. 다음해인 1841년에는 응와 이원조가 제주의 목사로 재임하게 된

*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다. 이원조 역시 추사와 교유를 하며, 제주의 유학자인 매계와도 인연을 맺게 된다. 이렇듯 같은 시기에 제주에 살면서 각각 다른 처지 즉 제주인, 유배자, 위정자의 처지에서 제주를 바라보는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이들이 각자의 처지에서 느끼는 제주는 각각 제주의 일부분이나 이들을 통합하면 19세기의 제주의 모습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2. 본론

2.1. 매계 이한우 : 수신과 자연미 발견의 공간

매계(梅溪) 이한우(李漢雨)(1823-1881)는 제주의 문인이다. 그는 여러 차례 향시에 뽑혔고, 대과에 뜻을 두어 여러 차례 상경을 했으나 매번 고배를 마셔야 했다. 그래서 고향인 제주로 돌아와 학문에 힘쓰게 된다. 또한 추사가 귀양 오자 추사를 찾아가서 학문을 넓힌다.

매계의 시는 만사와 영주십경을 제외하면 총 94편 99수다. 이중 외지에서 지은 것으로 보이는 시는 총 27편이며 이들 시중 세 편을 제외하면 모두 나그네의 회포와 고향을 그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¹⁾ 즉, 매계의 시중 약 사분의 일 정도가 고향을 제재로 삼는 내용이다. 대과를 위해 한양에서 머물면서 고향을 그리게 되고 이를 시로 표현한 것이다.

秋思

가을 그리움

驟雨殘蟬過遠林

소나기 지나니 가을 매미소리 멀리 숲에서 들려오고

1) 매계에 대한 유일한 선행 연구자는 김새미오이다. 그는 「梅溪 李漢雨의 詩文學攷」(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에서 매계의 시세계를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① 과거의 낙방과 좌절, ② 천명 인식과 자연 귀의, ③ 수신 의지와 현실 초탈, ④ 영주십경의 형상화.

詩情偏與客愁心	시정이 모여 일어도 나그네 수심은 깊네
中天見月新秋色	하늘 가운데 보이는 달은 새로운 가을빛을 띠었고
千里登樓古國心	높은 누각에 오르니 머나먼 고향 그림네
塵世無人和白雪	떠돌세상 흰 눈처럼 결백한 사람 없어도
雲山何處煉黃金	구름산은 어디든 황금을 이겨놓은 듯하다
圖書竹石吾廬好	대나무와 돌담 둘러 책 읽는 내 막사리 좋으니
樵弟漁兄日夕尋	나무하고 고기 잡는 벗들 저녁마다 찾아들려나 ²⁾

초가을의 정취가 풍기는 밤에 둥근달을 보며 많은 시정이 일지만 여러 번의 과거 낙방으로 현실에서 좌절한 나그네인 매계의 마음은 무겁다. 이어서 현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집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하며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매계에 있어서 고향은 자신의 좌절을 벗어날 수 있는 탈출의 공간이며 자신의 상황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이며 그리움의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 설정은 다른 시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述懷

一輪明月滿長安
緩步空庭醉興闌
玉笛多情雲外聽
青山更好雨餘看
向人芳草春將暮
近水高臺夜欲寒
此際鄉愁眠不得
海棠花下倚雕欄

회포(懷抱)를 펴다

둥근 달이 온 서울을 밝게 비추는데
빈 뜨락 천천히 거닐어 취흥도 거두어지네
옥피리 소리 정다운데 구름 밖에서 들리는가
청산은 비에 씻겨 더욱 보기 좋아라
사람 대하여 핀 꽃들, 봄날 함께 저물려니
물가에 세운 높은 누대, 밤이 되어 차구나
이 정경에 고향 그려 잠도 이루지 못하리니
해당화 아래 고운 난간에 기대어 섰네³⁾

2) 김영길, 『梅溪先生文集』, 제주문화, 1998, p. 46. 김영길이 매계문집을 영인하고 번역해서 책으로 출판했다. 책의 페이지는 영인한 이 책의 페이지를 따랐다. 이후의 매계의 시도 이와 같다. 또한 해석은 김영길의 해석에 약간의 첨삭을 가했다.

3) 『梅溪先生文集』, p. 40.

앞에서 언급한 시와 비슷한 형태이다. 매계에게는 제주가 좁고 외부와 단절된 절해고도의 섬이 아니라 자신이 그리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랑의 대상이다. 또한 자신의 좌절에 대한 단순히 절망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극복하거나 절망으로부터 도피할 장소로 자신의 고향 즉 제주를 그리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조선조 사대부들은 자연에 대하여 이념의 표상, 자족의 공간, 유미적 형상의 세 모습으로 인식한다 할 때⁴⁾ 매계의 경우에는 송암 권호문과 같이 처음부터 벼슬에 뜻을 두지 않은 것은 아니나 현실의 벽으로 인해 처사로서 자연에 접하게 된다. 권호문과의 시작은 다르나 그 끝은 같아진다고 할 수 있다.

寫懷

회포를 그리다

雲意山舍雨	구름은 산에서 비를 머금고
波聲海得風	파도소리는 바다에서 바람에 실려오네
閑來因動興	살며시 다가와 흥취 부추기나니
傾酒對書童	서동을 마주하여 술잔 기울이네 ⁵⁾

제주에 있을 때의 매계에게 자연은 더 이상 처량함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다. 서울에서의 자연은 매계에게 고향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매개물에 불과했다. 그러나 고향에서의 자연은 흥취를 느끼게 하는 존재로 나타나 있다. 자연과 자신은 분리되지 않으며 자연의 흥취는 곧 매계의 흥취가 된 것이다. 자연과의 합일을 이루면서 과거에 자신이 이루지 못한

4) 손오규, 「조선조 사대부시가의 자연인식」, 『산수문학연구』, 제주대학교출판부, 2000, pp. 384~414. 손오규는 여기에서 조선조 사대부시가 중 시조와 경기체가를 중심으로 사대부가의 자연인식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퇴계와 같이 산수는 거의 직접적 동기가 학문대성과 도의 실천공행에 있을 때 자연은 이념의 표상의 대상이 되며, 둘째, 농암과 같은 처사객이나 송암과 같은 산림처사들은 자연을 자족의 공간으로 인식하며, 셋째, 고산과 같이 자연을 유미적 형상으로 인식하여 자연의미를 발견하는 것으로 논한다.

5) 『梅溪先生文集』, p. 1.

꿈 즉, 관직에 나가 겸선천하(兼善天下)하려는 꿈은 사라졌으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자연과 하나가 되어 세속의 욕심을 버리게 되면서 독선기신(獨善其身)하는 유학자의 모습을 다음과 같은 시에서 찾아볼 수 있게 한다.

偶吟

雪後園林日影疎	눈 내린 과원 숲에 햇빛 엷은데
海山靑到數椽廬	한라산 푸른빛이 초가 서까래에 닿누나
胸中自是無凡想	마음 바르게 지니면 세속 욕심 없으리니
坐對晴牕百本書	갠 창가에서 백 권 책을 대하노라 ⁶⁾

매계는 세속의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다잡고 있다. 즉 관직에의 욕심을 버리고 홀로 독선기신 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과의 합일은 매계로 하여금 자연에 대한 관심을 배로 늘게 한다. 제주의 자연에 대한 매계의 관심은 결국 제주의 자연을 완상하게 되고 영주십경을 짓는데 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영주십경은 후에 제주의 유생인 심재에 의해 다음과 같이 거론 되고 있다.

살피건대 십경이라 칭한 것은 오래된 것이 아니라 근래의 것이다. 근세의 선배 李漢震이 전도의 뛰어난 경치를 나누어 십경으로 만들고 거기에다 가 장먼저 네 운자의 시(律詩)를 지어 불러 이를 증험하니 이로부터 이름난 승지가 되었다. 劉澹, 金亮洙, 李容植, 金昌鉉, 金桂斗, 金義正과 같은 여러 선비들이 그의 시에 화답하여, 이로부터 밖으로 향기로운 이름이 퍼지고 곧 호평을 받았다.(중략) 그 가운데 기이한 경치와 아름다운 구역이 십수 곳 뿐만은 아닌데, 다만 바다 밖에 치우쳐 있어 세상에 그 아름다움을 알려줄 기회가 없었다. 만약 大賢이 큰 붓을 빌어 그 솜씨를 발휘하였다면 무이구곡이나 소상팔경이 이에 더하겠는가.⁷⁾

6) 『梅溪先生文集』, pp. 9-10.

7) 金錫翼, 『海上逸史』, 『心齋集』2권, 濟州文化, 1990. p. 371. “按十景之稱非古而近矣. 近世先輩李漢震收拾一州勝概分爲十景皆首唱四韻以證之於是一時名勝. 如劉澹·金亮洙·李容植·金昌鉉·金桂斗·金義正諸公繼以和之. 自此馨播中外遂得好評.(중략) 其間奇景勝道不啻十數計徒以僻在海外世無由以知其勝者. 若得大賢鉅筆一徑

심재가 논의한 바와 같이 매계는 제주의 절경을 품제하여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다. 여기에서부터 매계의 제주 사랑은 시작한다. 그러나 매계의 십경이 구성과 시상에서 치밀하지 못했다면 대가들과 후대 시인들이 차운하지 않았을 것이다. 영주십경의 치밀한 구상은 각각의 제목에서부터 시작된다. 가는 것과 오는 것(出日, 落照), 멈춰있는 것과 움직이는 것(春花, 夏瀑),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秋色, 晚雪), 땅 밖에 있는 것과 땅 속에 있는 것(奇巖, 窟寺), 산 경치와 바다 경치(釣魚, 牧馬)를 대비시켜 십경의 제목들이 각각 대구를 이루고 있다.⁸⁾ 매계의 이런 치밀한 구상은 제주의 자연을 음미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앞에서 매계가 자족의 공간으로 자연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살펴봤지만 여기에 이르면 더 이상 매계의 자연 인식은 자족의 공간이 아니라 자연의미를 발견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題瀛洲十景後

詩成十景景多疑 승경을 헤아려서 십경시를 지었지만
 只畫葫蘆未畫奇 다만 호리병을 그렸을 뿐 기경은 못 그렸네.
 奇在世人難見處 기이한 모습 세상 사람들 보기 어려운 경치러니
 人稱別景畫於詩 사람들이 별경이라 하는 걸 시로 그렸네.⁹⁾

영주 십경을 짓고 후기를 쓰면서 매계는 자신이 나타낸 십경이 호리병에 그친다고 겸손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의 겸손함은 제주의 아름다움을 자신이 느끼기에는 제대로 그리지 못했을까하는 의구심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의 십경 창작은 사람들이 칭하는 아름다움을 시로 나타내면서

發揮則雖武夷之九曲瀛洲八景何以加此.”

8) 이에 대한 논의는 오문복의 『영주십경』(제주문화, 2004.)에 자세히 언급되고 있다. 오문복은 영주십경을 읊은 여러 시인들의 작품을 묶으며 매계의 품제를 원전(原典)으로 삼았다.

9) 『梅溪先生文集』, p. 97.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제주의 자연미의 발견과 동시에 혼자 향유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는 제주의 아름다움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 논의된 매계의 제주에 대한 관점은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 타지에서 현실에 대해 절망할 때 제주는 매계에게 고향으로서 향수의 대상이 된다. 둘째, 매계에게 제주의 자연은 혼자 완상하고 현실에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공간과 독선기신(獨善其身)하는 장으로 나타난다. 셋째, 영주십경을 읊는 단계에 이르면 더 이상 제주의 자연은 혼자 즐기며 완상하는 공간에 머물지 않는다. 제주의 자연에서 미를 발견하고 이러한 미적 감상을 시로 표현함으로써 세상과 함께 공유하고 제주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2.2. 추사 김정희 : 그리움과 위기지학의 공간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1786~1856)는 헌종 6년(1840) 9월에 윤상도의 옥사에 연루되어 제주도 대정현에서 위리안치 유배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이후 9년 동안 제주에서 죄인 생활을 하게 된다. 부영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에 지어진 시는 총 51제 81수다.¹⁰⁾ 필자는 이 시들 중 유배지에서의 그리움을 나타내는 시에 초점을 맞추려한다. 형제, 친구, 아내, 임금에 대한 그리움은 자신이 있는 장소에 대한 부정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은 현실에서 불만족을 나타내게 마련이다.

瀛洲禾北鎮途中

村裏兒童聚見那
逐臣面目可憎多

마을 안 아이들이 무얼 보려 모였는지
귀양살이 면목이 하도나 가증한데

10) 부영근, 「추사 김정희의 제주 유배시 고찰」, 『영주어문』11집, 영주어문학회, 1999.

終然百折千磨處	끝끝내 백천 번을 꺾이고 갈릴 곳
南極恩光海不波	남극에까지 은광이 미쳐 바다도 잔잔하네 ¹¹⁾

추사가 처음 화북진에 도착하여 술회를 한 것이다. 죄지은 몸이라 제주의 아이들이 쳐다보는 것조차 부끄러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임금의 은혜로 파도가 일지 않아 자신이 무사히 왔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임금을 향한 그리움의 표출이라 다시 말할 수 있겠다. 이 같은 그리움의 표출은 현실에 대한 부정을 이끌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현실부정의 출구로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나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현실을 달관하는 달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次癸詹

東風雨後換西風	동풍이 비 내린 뒤 서풍으로 바뀌고
卷盡繫雲碧漢空	몽게구름 걷히니 파란 하늘 열렸네
雨雨風風如是好	비 내리고 부는 바람 이처럼 적당하니
似隨人意補天功	사람 뜻을 따라 하늘이 돌보는 듯하네
離合悲歡十二時	원 종일 슬픔과 기쁨이 오락가락하는데
一廻圓缺一廻思	둥글고 이지러질 때마다 생각이 분분하네
前身本自來天上	전신이 본래 하늘에서 내려왔으나
除却君王摠不知	임금을 제외하곤 알아보는 이 없네
行當騎馬過桑田	종당에 말을 타고 상전벽해를 지나니
可笑秦童弱水船	진나라 아이들의 배를 탄 것 가소롭구나
始識神山非別處	비로소 삼신산이 특별한 곳 아님을 알겠으니
聖恩不死即神仙	성은으로 죽지 않으니 곧 신선이 사는 곳이라네 ¹²⁾

11) 김정희, 『阮堂全集』10. 『한국문집총간』301. 2003. p. 187.

12) 앞의 책. p. 188.

이 시에서 추사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된다. 하지만 자신을 알아주는 이는 임금님 외에 아무도 없다. 제주에 있어 보니 삼신산이 별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고 진나라의 불사약을 구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자신이 임금님의 성으로 죽지 않으니 이게 바로 신선이 사는 곳이라 말하고 있다. 이 또한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며 임금을 그리워하는 한 단면으로 바라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을 신선이라 칭하면서 현실에서 벗어나 삶을 달관하는 추사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현실에서의 달관은 현실에서 미련을 버리게 만든다. 이러한 미련의 버림은 결국 자기를 위한 학문(爲己之學)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悼亡

那將月地訟冥司	어떻게든 월모에게 저승의 일을 하소연해서
來世夫妻易地爲	내세에는 부처가 서로 바뀌게 하여
我死君生千里外	천리 밖에서 내가 죽고 그대는 살아서
使君知我此心悲	그대가 내 마음의 아픔을 알게 했으면 ¹³⁾

추사의 그리움은 비단 임금으로 국한 되지 않는다. 추사가 제주에 귀향 온지 2년여 만에 아내를 잃게 된다. 위의 시는 이미 죽은 아내가 자신의 슬픔을 알아주길 바라는 가정의 형식으로 자신의 슬픔의 깊이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아내를 추모하는 글에서도 그의 아내에 대한 정을 살필 수 있으며 아내를 그리워하는 지아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夫人禮安李氏哀逝文

임인년 11월 을사삭 13일 정사에 부인이 예산의 추사에서 일생을 마쳤는데 다음 달 을해삭 15일 기축의 저녁에야 비로소 부고가 해상에 전해왔다. 그래서 부 김정희는 설위하여 곡을 하고 생리와 사별을 비참히 여기며 영영

13)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완당전집』3, 1996, p. 78(영인본 페이지).

가서 돌이킬 수 없음을 느끼면서 두어 줄의 글을 엮어 본집에 부치어 이 글이 당도하는 날 그 궤전을 인하여 영쾌의 앞에 고하게 하는 바이다.

어허! 어허! 나는 향양(桁楊)이 앞에 있고 영해가 뒤에 따를 적에도 일찍이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는데 지금 한 부인의 상을 당해서는 놀라고 울렁거리고 일이 빠지고 혼이 달아나서 아무리 마음을 붙들어 매자도 길이 없으니 이는 어인 까닭이지요. (후략)¹⁴⁾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아내 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자신이 처한 처지를 부정하게 되는 근거를 만든다. 이러한 처지에 대한 부정은 결국 자신 안의 세계에 침잠하는 계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을 생각하기보다 학문에 매진하게 만든다.

제한된 공간에서의 삶은 외로움을 동반하게 마련이다. 추사는 이러한 외로움을 달래는 도구로 제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연물인 수선화를 접한다. 자신은 귀하게 여기는 수선화가 제주에서는 푸대접을 받고 있음을 한탄한다.

수선화가 여기저기에 널려 있어 골짜기로 헤아리듯 많다. 전묘의 사이에는 더욱 성한데 지방사람들은 어떤 물건인지도 알지 못하고 보리 갈 때면 다 파버린다. (水仙花在在處處可以谷量 田畝之間尤盛 土人不知爲何物 麥耕之時盡爲鋤去)

碧海青天一解顏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에 한 번 활짝 웃으니
仙緣到底未終慳	선연이란 끝내는 인색한 게 아니로세
鋤頭棄擲尋常物	호미 끝에 버려진 심상한 이 물건을
供養窓明几淨間	창 밝고 쉼대는 그 사이에서 공양하네 ¹⁵⁾

14) 『阮堂全集』7, p. 134. “壬寅十一月乙巳朔十三日丁巳, 夫人示終於禮山之楸舍, 粵一月乙亥朔十五日己丑夕, 始傳訃到海上, 夫金正喜具位哭之, 慘生離而死別, 感永逝之莫追, 綴數行文, 寄與家中, 文到之日, 因其饋奠而告之靈几之前曰, 嗟嗟乎吾桁楊在前嶺海隨後, 而未嘗動吾心也, 今於一婦人之喪也, 驚越遁剝, 無以把捉其心, 此曷故焉. (후략)

15) 『阮堂全集』10, p. 190.

추사는 위리안치 유배를 당해서 적거지에서 쉽게 나갈 수가 없었다. 그러한 추사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바로 수선화였다. 제주에서는 쉽게 볼 수 있지만 제주인들은 그 진가를 알아봐 주지 않아 홀대받던 수선화를 자신의 창가에 옮겨놓고 감상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추사의 경우에는 자연을 감상하는 태도 또한 자신의 공간으로 가지고와 혼자서 감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水仙花

一點冬心朶朶圓	한 점의 겨울 마음 송이송이 둥글어라
品於幽澹冷雋邊	그윽하고 담담하고 냉철하고 빼어났네
梅高猶未離庭砌	매화가 높다지만 뜨락을 못 면했는데
清水眞看解脫仙	맑은 물에 해탈한 신선을 보겠구려 ¹⁶⁾

추사는 신선을 보듯 기쁜 마음으로 수선화를 대하고 있다. 추사의 유배 상황으로 추사가 제주의 자연을 완상하거나 즐길 수 있는 여건은 쉽게 허락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 중에서 추사는 수선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신의 위안을 삼고 밖에서 버려지듯 방치되는 꽃을 자신의 공간으로 옮겨와 그곳에서 완상하며 위안을 삼고 있다.

추사가 제주에서 유배하는 9년 동안 추사체를 완성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추사의 각고에 노력에서 얻어진 것이다. 그의 노력은 유배지라는 제한된 환경이 추사로 하여금 爲己之學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학문을 하는 중에 제주의 자연물의 일부인 수선화가 그에게 위안을 주었을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은 추사가 제주를 바라보는 일부의 관점을 살펴봤다. 추사는 제주를 부정의 대상, 즉 자신이 속해야 할 공간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 이는 임금을 그리워하며 가족을 그리워하는 양상으로 나타난

16) 앞의 책, p. 190.

다. 그러나 이러한 그리움은 유배라는 환경 속에서 쉽게 해소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다. 이러한 해소 불가능한 감정을 완화시키는 도구로 추사는 수선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수선화를 감상함에 있어서 자신만의 공간으로 가져와 감상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연물을 외부와 공유하기 보다는 혼자 감상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외부와의 단절은 추사로 하여금 위기지학을 하게하고 이러한 학문적 침잠은 결국 절해고도인 제주에서 추사체를 완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2.3. 응와 이원조 : 겸선천하의 실천공간

응와(凝窩) 이원조(李源祚)(1792~1871)¹⁷⁾는 1841년 윤3월에서 1843년 6월까지 제주목사로 재임한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특히 제주의 교학진흥에 심혈을 기울였다. 유현의 배향이라든가 시취, 그리고 절목의 간행, 원생들에 대한 비답, 여러 사당이나 서당의 중수 등이 그것이다.¹⁸⁾ 이러한 교육의 진작은 제주의 낙후된 교육여건을 보고 학문을 일으키려는 응와의 노력이었을 것이다. 이는 그가 학문을 중시하는 태도에서 발현된 것이다.

또한 응와는 백성들의 생활에 관심을 갖는다.¹⁹⁾ 애민정신의 기본은 관리로서 민초들의 생활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있다. 이러한 응와의 모습은 제주에 있는 동안 작성한 탐라록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중 특히 “탐라십요(耽羅十謠)”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탐라십요는 제주의 고유한 풍속과

17) 응와의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면 수학기를 거쳐 21세에 권지승문원 부정자로 출발하여 59세가 되던 해에 경주부윤을 그만둘 때까지 벼슬을 하였다. 이 시기에는 결성현감, 강릉대도호부사, 제주목사, 자산부사, 경주부윤 등지의 지방의 목민관으로 나가서 민생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상당한 치적을 올리는 등 애민 정신을 위정의 현장에서 실천했다. 그리고 벼슬을 그만둔 뒤에는 가야산 아래 만귀정으로 돌아가 80세까지 자연으로 귀隱하여 자연을 완상하며 지냈다. 또한 벼슬살이 동안 이동지역에 따라 남으로는 한라산에서 시작하여 북으로는 압록강변의 강계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국토를 망라하여 국토기행을 했다.

18) 윤미란, 「조선시대 한라산 유기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19) 조선왕조실록, 현종 3년. 응와는 영남의 기근을 구제해 줄 것을 상소하였다.

풍속, 제주도민의 생활 면모를 읊은 죽지사계의 5언시다. 죽지사란 향토의 경치나 인정 풍속 등을 읊은 노래이다.²⁰⁾

탐라십요에는 放牧(가축을 놓아 기름), 踏田(말떼로 밭을 밟음), 除草(김매기), 築場(담을 쌓음), 槎船(떼배), 春磨(맷돌질), 汲簞(물 길어 나름), 織涼(양태를 짤), 潛女(잠녀), 房妓(수청 드는 기생), 이상과 같은 10개의 소재목이 붙어 있다. 처음의 다섯 수는 가축과 밭농사와 어부에 관련된 일을 읊고 나서 다음 다섯 수는 제주의 여인들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제주인의 생업을 살필 때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축을 기르는 것을 우선으로 놓고²¹⁾ 다음으로 가축을 이용하여 밭농사를 짓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20) 양순필, 「이원조의 탐라십요소고」, 『제주대학교 논문집』34 인문사회과학편, 1992. “원래 죽지사란 중국의 악부의 이름으로 일면 「파유사(巴歎詞)」라고 했다. 당서에 의하면 「每事歌竹枝」라는 대목이 있는데 당의 유우석이 처음으로 부른 것으로 남녀의 정사 또는 그 지방의 풍속 따위를 읊은 것이다. 죽지사는 당에서는 주로 푸족의 풍경을 기술하였는가 하면 송의 소동파 이후 점차 그 본래의 뜻이 변하여 오로지 그 지방의 풍토를 노래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방언, 언어(俚語)가 혼효하는 것을 꺼리지 않고 다소의 정사를 노래하면서 반드시 지명을 밝혀 제하여 모죽지라고 하게 되었다.”

21) 이원조, 「탐라록」,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9. p. 384. 시의 해석은 오문부의 「耽羅詩選」(이화문화출판사, 2006) 해석을 인용하였다.

清晨郭四門 아침 네 곳 성문에는
牧童嘯且呼 목동이 휘파람으로 부르는 소리
君家十鳥梟 저 집의 검은 암소 열 마리와
我家雙白駒 이 집의 흰 망아지 두 마리를 합쳐
物性尙愛群 동물들은 무리 짓기를 좋아함으로
出入與之俱 나가고 들어가기를 함께 한다
張稻與李麥 장가네 산도(山稻)밭과 이가네 보리밭을
慎勿輕踐蹂 밟아버리지 말게 조심해야지
相携下山椒 줄줄이 산 밑으로 내려오면은
今年多廢疇 금년 농사 망치는 밭 많으리니
-放牧- 가축을 놓아기름

島田多犂确	섬 안 밭에는 돌 자갈이 많은데
犂确又浮燥	돌 자갈이 많은 밭엔 습기가 없어
不踏苗不生	밟아주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고
愈踏苗愈好	밟아줄수록 더욱 싹이 잘 나므로
倘微爾馬牛	아마도 저 말과 소가 아니면
人力不勝草	인력으로는 풀을 이기지 못하리라
富者自有屯	부자집이 가진 말떼들
貧者質以布	가난한 이웃 옷감을 주고 빌려다
但願播種後	씨 뿌려 밟은 뒤에 바라는 것은
十日不下雨	열흘 동안만 비가 오지 말았으면
-踏田	- 말떼로 밟을 밟음 ²²⁾

제주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파종을 하는 순간부터 타지와 다르다. 그 이유는 척박한 땅 때문이다. 웅와도 시에서 밝히고 있듯이 돌밭에 씨를 뿌리면 그 씨들이 잘 뿌리 내리지 못해 이를 도와주기 위해 가축을 이용해서 땅을 밟아주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가축이 없으면 부자의 가축을 빌려와서라도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농사를 지으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인 김매기에 대한 언급이다.

上品一易田	한결같이 손질된 상품의 밭은
十畝價百錢	열 이랑에 일백 꿩돈을 주어야
粟頭纔出殼	서속 싹머리에 껍질이 겨우 벗겨질 즈음
粟傍草已長	주위에 이미 자란 풀은
大鋤鉏其土	큰 호미로 흙을 호미질 하여
除草易反掌	손바닥을 뒤집듯 풀을 뽑는데
小鋤僅如鉤	갈고리만한 작은 호미로
拔草苗不傷	묘가 상하지 않게 풀을 뽑아야 하니
土性本如此	이와 같은 흙의 성질 때문에
島農功倍常	섬 농사꾼은 갑절이나 일을 하여야

22) 같은 책, pp. 384-385.

- 除草

- 김매기²³⁾

이렇듯 옹와의 관찰은 자세하다. 제주 땅의 성질을 자세히 간파하고 있다. 이러한 관찰은 왜 이루어졌을까하는 것이 필자의 논지의 출발이다. 앞에서 밝혔듯이 옹와는 애민정신을 시속에 담았다. 위정자에게 애민정신의 발로는 정치를 잘하는 것이다. 정치를 잘 하는 것은 학문을 통하여 얻은 자신의 신념을 추이급인(推以及人)하여 겸선천하(兼善天下)하고자 하는데 바탕을 둔다.

제주는 외부와 단절된 공간이다. 즉 중앙과의 교류가 그리 원활하지 않다. 오현 중에 한 분인 규암 송인수는 제주에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목사로 재직했다. 목사로 재직할 당시에 그도 제주에 관한 시를 남겼는데 그의 심리 상태가 담겨져 있다.

濟州有吟

제주에서

學得詩書三十年
竹符令領濟山川
一生憂患頭鬢白
萬里飄零歲月遷
毒霧瘴煙迷澤國
鯨波駭浪撼蠻天
殊方日落離懷苦
渭北江東眼舒穿

삼십 년간 시경 서경을 배워 익히다
이제 와서 부절을 받고 제주 산천을 다스리네
근심 걱정 속에 살다보니 머리는 희어졌고
먼 고장 떠돌아 다니며 세월을 보냈네
독무와 장연이 흐릿한 바닷가 나라
하늘도 징그리게 하는 큰 물결 거친 파도
낯설은 지방에 온 나그네 심사 더욱 괴로워
위수 북쪽 강동 땅으로만 눈길이 돌아간다²⁴⁾

제주의 바다는 독무와 장연이 흐릿한 바다이다. 이러한 바다를 끼고 낯선 지방에 온 규암의 심사는 매우 괴롭다. 실제로 규암은 3개월 동안의 짧은 임기를 마치고 다음 목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제주를 떠나버린다. 이

23) 앞의 책, p. 386.

24) 송인수, 한국문집총간 24 「규암집」, 민족문화추진회, 1996. 해제는 吳文福의 앞의 책 p. 205를 따랐다.

러한 그의 행동은 다시 유배를 가게 되는 중요한 구실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그만큼 규암에게 있어서 제주는 백성들을 돌보아야 할 오지가 아니라 오지 말아야 할 유배지와도 다름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제주 목사들의 제주 인식의 큰 줄기중 하나를 바로 규암의 마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득한 바다로 인해 본토와 떨어진 유배와 다름이 없는 불행의 땅이 바로 제주였던 것이다. 위정자에게도 제주에서 느끼는 감정은 규암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겸선천하를 하려는 응와의 의지는 송인수와는 다른 양상으로 제주를 바라본다. 제주가 비록 오지의 땅이지만 이곳은 바로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응와의 유학적 입장 즉 겸선천하하려는 의지는 중앙이 아닌 오지인 제주도에서 더 실현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는 자신의 의지대로 제주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응와는 제주도민에게 선정을 베푼다.

응와는 곡식 운반을 청해 구휼책을 펼쳤고 도내 가구마다 세금을 경감해 주었다. 그리하여 관에서 (중략) 노인들을 위해 養老宴을 베풀었으며 養老宴記를 짓고 附詩한다.²⁵⁾

응와는 제주에 머무는 동안 탐라록에 많은 시문을 남겼다. 여기에서 제주의 자연을 읊은 시 또한 많다. 「도근천렵어」²⁶⁾와 같은 시에서는 도근천에서 고기를 잡으며 느끼는 감흥을 읊고 있다. 여기에서 은어가 바다에

25) 양순필, 앞의 논문. p. 43. 양로연에 대해선 탐라록 pp. 401~402에 나온다.

26) 이원조, 「탐라록」,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9. p. 83.

都近川獵魚

都近川中銀口魚	도근천의 은빛 입의 고기는
爲魚何不產海於	어찌하여 바다에 살지 않는지
魚云物性皆隨分	모든 물건은 제각기 따라야할 분수가 있어
小水鱖鱖合我居	작은 물에서 비늘 번뜩이는게 나는 좋다고 (하략)

살지 않는 이유는 모든 물건이 제각기 자신의 분수에 맞는 곳에 따르기 때문(各得其所)이라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응와는 제주의 자연을 읊음에도 자신의 도학적 입장을 놓지 않는다. 비슷한 의미에서 응와의 「遊漢擎山記」 또한 한라산의 유람에서 그는 수양론적인 성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²⁷⁾

응와의 여러 가지 시세계중 필자는 애민정신에 입각한 제주도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응와의 시인 「탐라십요」에 대해서 논했다. 「탐라십요」에서 응와가 가지는 제주도 현실의 정확한 인식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본 전제 조건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응와는 실제로 제주민에게 선정을 베푼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응와의 제주를 바라보는 시선 중에 한 가지는 자신의 도를 닦고 이를 실천하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3. 결론

지금까지 19세기 비슷한 시기에 제주에 거주하였던 세 명의 문인 매계 이한우, 추사 김정희, 응와 이원조가 바라봤던 제주의 일면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매계의 경우에는 제주가 고향임으로 타지에서 삶의 실패를 맞볼 때 제주를 그리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제주에 돌아온 뒤에는 자연에서 자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주십경」을 짓기에 이르면 매계에게 제주의 자연은 자족의 공간이 아니라 제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제주의 아름다

27) 윤희란의 앞의 논문. p. 50. “한라산을 등람하고 나서 유산기를 쓴 대부분의 작가들이 한라산을 선계와 동일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데 반해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본 이는 이원조이다. 그에게 한라산은 단순한 탐승의 대상이 아니라 도체가 깃들인 곳이며, 이를 통하여 심신을 수양하는 장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공자의 도를 궁구하고 실천하고자 했던 그는 그가 밟은 한라산 노정을 적기 이전에 먼저 한라산과 관련된 기이한 이야기들이라든지 신선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였다.”

움을 함께 영유하는 데에까지 나간다. 반면 유배자의 위치로 제주에 온 추사는 현실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다. 마찬가지로 제주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된다. 제주에 대한 부정은 철저한 자신의 탐구로 이어지고 결국 추사체를 완성하는데 밑거름이 된다. 이런 추사에게 제주의 자연물 중 수선화는 그에게 유배지에서의 위안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응와는 제주에 목사로 재임하면서 제주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죽지사계 시가인 「탐라십요」를 짓는다. 「탐라십요」는 제주의 백성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적 관찰은 자신이 다스려야 할 백성들의 실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곧 위정의 기본이 된다. 유학자로서 응와는 자신의 이상 즉 겸선천하의 실천의 공간으로 제주를 바라보고 있다. 제주도라는 한정된 공간은 각각의 위치에 따라 바라보는 양상이 다양해진다. 비슷한 시기의 세 유학자들은 자신의 처지에서 고향으로서 그리움을 표출하는 대상으로 보기도 하며 자연미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대상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유배지로서 자신이 인정할 수 없는 공간이 되며, 그러한 와중에 외로움을 달래는 자연물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자연조건과 지리적 조건이 열악한 공간인 제주도가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여 백성들을 구제해야 되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 핵심어: 이한우, 김정희, 이원조, 매계, 추사, 응와, 영주십경, 탐라십요, 제주.

<참고문헌>

- 金錫翼, 『心齋集』1~2권, 濟州文化, 1990, p. 371.
- 김정희, 『阮堂全集』, 『한국문집총간』301. 민족문화추진회, 2003.
-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완당전집』1~3, 1996.
- 손오규, 『산수문학연구』, 제주대학교출판부, 2000, pp. 384~414.
- 송인수, 『圭菴集』, 『한국문집총간』24, 민족문화추진회, 1996.
- 오문복, 『영주십경』, 제주문화, 2004, p. 3.
- 오문복, 『耽羅詩選』, 이화문화출판사, 2006.
- 이원조, 『耽羅錄』,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9.
- 이한우, 김영길역, 『梅溪先生文集』, 제주문화, 1998.
- 강구울, 『옹와 이원조의 생애와 시세계의 몇 국면』, 『퇴계학과 한국문화』 39호, 2006.
- 금장태, 『옹와 이원조의 도학사상과 시대의식』, 『退溪學과 韓國文化』39, 2006.
- 김새미오, 『梅溪 李漢雨의 詩文學放』,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부영근, 『추사 김정희의 제주 유배시 고찰』, 『영주어문』11, 1999.
- 양순필, 『추사의 제주유배한시』, 『논문집』제14집, 제주대학교, 1982.
- 양순필·양진건 『추사의 제주 교학활동 연구』, 『탐라문화』,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7.
- 양순필, 『추사 김정희의 한문서한고』, 『탐라문화』9,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9.
- 양순필·김봉옥, 『추사 김정희의 제주유배문학 연구』 『논문집』제32집, 제주대학교, 1991.
- 양순필, 『옹와의 <영주십경가>고』, 『백록어문』제8집, 1991.
- 양순필, 『이원조의 <탐라십요>소고』, 『논문집』제34집, 제주대학교, 1992, p. 45.
- 윤미란, 『조선시대 한라산 유기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 이철희, 『추사 김정희 시론 연구』, 성균관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Abstract>

The Point of view of 19th Confucianism in Jeju

—Main theme : Hanwoo Lee, Jeonhee Kim, Wonjo Lee—

Sohn Gi-bum

This thesis examines 19th century Jeju through the eyes of Confucianists according to their circumstances and situations. Hanwoo Lee passed Hyangsi (village officer examination) several times but experiences failure in Daegua (civil servant examination). During this period in a foreign town, he misses his hometown Jeju. Moreover, he discovers the beauty of nature of Jeju when he returns to his hometown and writes Yeongjusipkyeong. His writing portrays not only his own appreciation but also in an aspect of sharing with others.

Jeonghee Kim is exiled to Jeju as condemnation of a criminal. He who came to Jeju as an exile, misses his king and his family. Such phenomenon makes him see the seclusive Jeju, which makes him refuse Jeju. He feels consoled by narcissus, Jeju's natural object in a confined space. However, this consolation shows his attitude of bringing a natural object into his own space rather than sharing it with others. Such an attitude of his is showing a phase of drowning into his internal conscience other than communicating with the outside.

Wonjo Lee comes to Jeju as a statesman. He composes Tamrasibyoo in which the life of Jeju is reflected. In Tamrasibyoo he describes the customs of Jeju in detail where the description began from his deep observation of peoples' lives. Through this, we can see he is poeticizing with his loving spirit towards Jeju citizens. Different from

Hanwoo Lee or Jeonghee Kim, this shows his volition to fulfill his ideal as a status of a statesman.

Likely, the Confucianists of the same era write about Jeju based on their experiences there. Jeju being reflected in their pieces becomes objects of discovery of beauty, is felt as a secluded island or a natural object of consolation, according to the situation or circumstance the writer is in. Finally, Jeju is also considered as a space that realizes one's own ideology other than an appreciation of nature.

• Keywords: Maegyeo, Hanwoo Lee, Chusa, Jeonhee Kim, Eungwa, Wonjo Lee, Yeongjusipkyeong, Tamrasibyoo, Jeju

* 이 논문은 2009년 2월 2일 투고되었고, 2월 20일 심사 완료되어 2월 23일에 게재 확정되었음.